

## 【 해외금융 뉴스: 중국 】

### 물가상승 우려 불구 하반기 긴축재정 완화 전망

- 최근 중국국가통계국이 발표한 5월 경제지표에 따르면, 5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대비 3.1% 상승해 정부 목표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남.
  -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세는 식품 및 주거 관련 가격 상승에 의한 것으로, 특히 5월 식품가격 상승폭은 4월의 5.9%보다 높은 6.1%를 기록해 물가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남.
  - 중국국가통계국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정부의 정책목표치인 3.0%를 초과하였으나, 이는 작년 낮은 상승률(평균 1.8%를 기록)에 대한 기저효과로 농산물 및 공산품 가격 안정화가 예상되면 소비자물가는 3.0%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.
  - 한편, 5월 공업생산은 전월대비 1.3% 하락한 16.5% 증가에 그쳤고, 1~5월간 도시 고정자산투자는 전년대비 25.9% 늘어났으나 지난 1~4월에 비해서는 0.2% 하락하는 등 공업생산 및 투자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인플레이션 우려가 저성장에 대한 우려로 변화되고 있음.
  
- 전문가들은 중국경제의 성장세가 최근 진정되고 있는 징후들이 발견되고 있는 만큼, 현재의 긴축재정정책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.
  - 일각에서는 물가상승에 대한 불안보다는 경제성장의 속도 둔화에 대한 우려가 더욱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긴축재정정책을 온건한 금융완화정책으로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음.
  - 중국 국책연구기관인 사회과학원도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 중반까지는 중국 거시경제정책 기조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, 경기 경착륙을 피하고 경제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반기부터 현재의 긴축재정정책을 다소 완화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조언함.

(금융시보, 6/13)